

## 濟州海女集團의 特殊語彙研究에 따른 文獻 및 그 課題

김 영 돈\*

東北아시아 일대의 바다를 무대 삼아 물질(裸潛漁業)하는 濟州海女는 석  
珍重할 뿐더러, 激減一踏에 놓였기 때문에 그 조사연구가 시급하고 중요  
롭다.

그 主體가 연약한 여인들이요,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  
되었다는 점에서, 그 작업방법이 裸潛漁業이라는 점에서, 超人的 潛水能力  
과 耐寒力, 分娩直前直後の 作業可能性 등의 빼어난 裸潛漁撈技倆을 갖추었  
다는 점에서, 농어촌의 여느 여인들이나 한가지로 농사일을 더불어 치른다  
는 점에서, 또한 特有的의 〈해녀노래〉를 지닌다는 점에서 世人들의 耳目을  
끈다.

異色視, 妖花視되기는 하나, 엄밀히 보면 해녀 역시 여느 女人들이나 다  
름없는 獰연한 生活人이다. 다만 물질, 곧 裸潛漁業이 유별난 職種일 따름  
이다. 따라서 해녀를 제대로 접근하려면 해녀 자체를 총체적으로 把握해야  
되고, 해녀들의 삶과 물질·海女服·海女器具는 물론, 그들의 家庭과 그들  
의 集團, 마을 및 信仰, 口碑傳承을 살살이 알아야 된다. 경제활동도 속속  
들이 알아야 하며, 採取物을 낚날이 터득해야 된다.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바  
다의 生理를 파악해야 되고, 돈벌이 나가는 과정과 그곳의 삶의 모습을 어  
련히 입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절실하다. 더욱 강조되어야 할 바는 한  
평생의 삶의 이야기(life history)가 기록돼야 마땅하다는 점.

이렇게 슬한 조사연구과제 가운데, 海女集團만이 보유하는 特殊語彙 考究

\* 前 제주대

또한 흥미롭고 보람찬 일이다.

그 語彙 역시 漁場 및 裸潛漁業 전반에 걸쳐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그 폭이 넓다. 따라서 여기에서는 考究에 참고할 文獻 일부 소개 및 研究 課題를 제시해 보는 序說의 作業에 머문다.

### (1)

海女集團의 특수어휘를 본격적으로 살핀 일은 거의 없다. 다만 다음 論著들은 參考가 될 터이며, 그 어휘 역시 띄엄띄엄 드러난다.

- 康大元：「海女研究」，韓進文化社，1973.
- 金榮敦 外：「海女調查研究」，「耽羅文化」第5號，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，1986.
- \_\_\_\_\_ 「濟州海女の 民俗學的 研究」，「濟州島研究」第3輯，濟州島研究會，1986.
- \_\_\_\_\_ “해녀작업과 그 어휘”，「송하 이종출박사 화갑기념 논문집」，1989.
- 張泰鎮：“濟州島 海女集團의 特殊語에 대하여”，「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」，
- 金載元·李相伯·李崇寧：「韓國西海島嶼」，1957.
- 玄平孝：「濟州島方言研究：第一輯 資料篇」，精研社，1962.
- 韓國農村社會學會：「農村社會學」，1965.
- 張泰鎮：“方向에 관한 風名語彙의 研究”，「국어국문학」41，1968.
- 李崇寧：“隱語考：「雪岳山山蔘採取人の 隱語를 中心으로 하여」，「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」，1957.
- 張泰鎮：「韓國隱語辭典」，1965.
- 한림화·김수남：「제주바다 潛嫂의 四季」，한길사，1987.
- Bright W. “Social Dialect and Language History”，*Current Anthro Pology*, Univ. of Chicago, 1960.

- Gumperz, J.J., "Speech Variation and the Study of Indian Civilization"  
American Anthropologist, Washington, 1963.
- 今村躬：「船の朝鮮」, 1930.
- 瀬川清子：「海女」, 未來社, 1970.
- 岩田準一：「志摩の海女」, 1971.
- 宮本常一：「海に生きる人びと」, 未來社, 1974.
- 中村由信・宮本常一：「日本の海女」, 1962.
- 浦口楠一：「志摩の海女」, 日本カメラ社, 1981.
- 金榮・梁澄子：「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」, 新宿書房, 1988.
- 柳田國男：「海村生活の研究」, 民間傳承の會, 1949.
- 辻井浩太郎・小久保榮一・入江泰吉：「海女」, 近鐵宣傳課, 1955.
- 私歌森太郎編：「志摩の民俗」, 吉川弘文館, 1965.
- 竹田旦：「離島の民俗」, 岩崎美術社, 1968.
- 伊藤治：「海女のことば」, 稿本, 1973.
- 中岡志州：「海女ことば：和具地方」, 「郷土志摩」, 志摩郷土史會, 1960.
- 田邊悟：「濟州島の海女の民具」, 「民具マンスリー」, 1974.
- 田仲のよ：「海女たちの四季」, 新宿書房, 1988.

(2)

濟州海女集團의 特殊語彙研究에 따른 그 조사항목은 어떠한가, 그 대강을 간추려 본다.

2.1, 濟州海女語彙基礎調査

① 海女生活 全般에 대한 調査

- 海女들의 마을
- 海女漁場
- 물질(裸潛漁業)
- 海女服 및 海女器具

## ○海女集團의 慣行 等

- ② 海女漁場과 그 이름
  - ③ 海女入漁와 그에 따른 어휘
  - ④ 海女들의 採取物의 종류와 그에 따른 어휘
  - ⑤ 海女器具와 그 이름. <이하 생략>
- 2.2, 濟州海女와 韓本土海女, 日本海女와의 對比 및 海女集團의 特殊語彙 比較考察
  - 2.3, 農村 및 山村의 職業語(occupational language)와 海女集團의 職業語와 의 對比考察
  - 2.4, 海女語彙의 背景考究
  - 2.5, 문헌에 드러나는 風名語彙(參照, 李漢「星湖僿說」)·魚名語彙(參照, 丁若銓「茲山魚譜」)·潮水語彙(參照, 申景濬「旅菴」)와의 對比考察
  - 2.6, 海女語彙와 그들 特有的 集團意識과의 相關關係 研究
  - 2.7, 海女語彙의 語學的 分析
  - 2.8, 海女語彙의 言語社會學的 文化人類學的 分析
  - 2.9, 海女語彙와 <海女노래> 사설과의 관계 분석

<이하생략>

(3)

그러면 海女集團의 特殊語彙(職業語)의 예를 몇가지 들어 보자.

3.1, 第一種共同漁場(海女漁場·裸潛漁場)의 이름

○西歸浦市 中文洞 B동네의 예.

[동쪽에서 서쪽으로]

삐랑돌·셋녀·굽들러진녀·바당녀·아진덕·서천바위·인거니·오깃개  
 봉오리·상코지·구계기잡는녀·감텃녀·개창녀·돌물찢·시리돌·진덕  
 ·느깨통·쉐똥느깨떡 등등.

○北濟州郡 舊左邑 杏源里의 예.

석은녀 · 흰돌코지 · 솟고냉이 · 북테기소 · 망마로코지 · 하나질성창 · 상자  
릿녀 · 물탄녀 · 노린녀 · 오즈여 · 녀은녀 · 알넙은녀 · 개굴녀 · 만섯녀 · 송  
어통바우 · 셋검은녀 · 개굴녀 · 모서여 · 남당알 · 등대알 · 누르코지 · 한갓  
목 · 닳거린녀 · 아침개 · 지방녀 · 개대가리 · 지픈개 · 한모살 등등.

○漁場 이름이 細分되고 슬하다는 사실과 漁場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주목  
할 일.

○물의 田地에, 또는 들과 山에 슬한 이름이 붙 듯, 漁場에 역시 그 이름  
이 흔하며, 해녀들은 독수리의 양날개처럼 물과 바다에 두가지 발을 지  
녔다고 볼 수 있다. 진실로 바다를 물의 발이나 다름없이 觀念한다는  
점에 주목할 일.

○또한 水深이 얇고 모래가 질런히 깔린 바다를 <모살바당>이라 한다든가  
海底에 돌들이 깔린 바다를 <머울밭>이라 한다든가, 岩盤이 海底에 깔  
린 바다를 <들랑창>이라 通稱한다든가 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일.

### 3.2. 波濤와 바람에 따른 어휘

사발물~사발에 담긴 물처럼 아주 잔잔한 바다.

명지바당~明細같이 고요한 바다.

지름잔 마찌~'기름잔같이'. 기름을 담은 盞처럼 평온한 바다를 형용할 때  
쓰이는 말.

죽은누~작은 파도.

큰누~큰 파도. 거친 파도. 怒濤.

삼삼제누~三兄弟波濤. 곧 연달아 세번이나 꺾이며 바닷가르 물려오는  
물결.

문둥결~몽글하게 거친 파도.

사스레기~자잘하게 이는 물결.

웨살~바닷속 해류가 몹시 거칠어 바다가 컴컴하고 험악한 상황.

양습~바람이 한쪽으르만 불길 앓고 맞은편으르도 불 경우.

## 3.3. 海女階層에 따른 어휘

最上級海女~대상군(大上軍).

上級海女~상군(上軍), 애기상군(어린 少女이면서도 그 기량이 出衆한 海女) 상잠수(上潛嫂)·상잠네(上潛女), 큰잠수·큰잠네·왕잠수·왕잠네 등.

中級海女~중군(中軍)·중잠수·중잠네 등.

下級海女~하군(下軍)·하잠수·하잠네·존은잠수·족은잠네·돌파리·뽕군·고망잠수·고망잠네·얌잠수·얌잠네·블락잠수·블락잠네 등.

## 3.4. 海女入漁에 따른 어휘

해경(解警)·허채(許採)~禁採했던 貝類·海藻類 採取를 허용하기 비롯하는 일. '대조문'이라고도 한다.

우미조문훈다~우뭇가사리를 켠다.

메역조문훈다~미역을 켠다.

곰숨빈다~자맥질하여 들어가서 전복이나 큰 소라가 보이는데도 숨이. 짧아 이를 캐지 못했을 때, 水面에 올라 숨을 재게 돌이키고(過度換氣作用하고) <테왁>을 붙들 사이도 없이 이를 채취키 위해 곧장 다시 자맥질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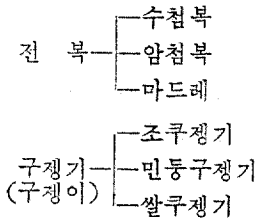
물에들다~海女作業하다.

<其他> 헛물·얌물질↔뱃물질·뱃질·물지·뽕중·메역물·우미물·오분작물·머정·숨비다·숨비(숨비·숨비질소리·숨비질소리·숨비소리·숨비소리)·훈물거리·본조갱이·불턱·고말피다 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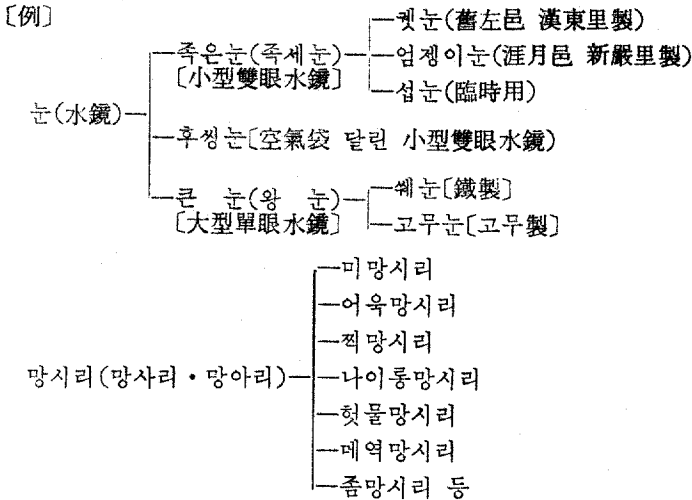
## 3.5. 採取物에 대한 어휘

[例]

메	역	{	— 돌메역
			— 줄메역
			— 조괵메역
			— 만괵메역
			— 넓메역



3. 6, 海女器具에 따르는 어휘



3. 7, 潮水名 [필자의 글(“海女調查研究”, 「耽羅文化」 5,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, 1986, pp. 88-89) 參照]

(4)

結論~우리의 課題(海女の 激減實狀과 海女集團의 特殊語彙 調查研究의 火急性)